

◆ (정책동향) ① 자영업자 지원대책 동향

- ▷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25.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24.11월 대비 2달만에 20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
- ▷ 정부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등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지역동향) ② (전 국) 청년 주거 문제 해소 노력

③ (제 주) 런케이션(Learning+Vacation) 활성화 추진

1 자영업자 지원대책 동향

□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자영업자 어려움은 가중

- 통계청에 따르면 '25.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되어, '24.11월 570만 6천명에서 2달만에 20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
 - ※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7%로서, 통계작성(63년) 이래 최저치 기록
-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것이 폐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 * 경영부담 조사(한국경제인협회, '25.2) : 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順
- 또한, 코로나19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20.3분기 777조원에서 '24.3분기 1,064조원으로 약 40%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연체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 자영업자 대출잔액 〉



〈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



출처 : 중앙일보, 한국은행

- 전문가들은 코로나 대출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 각종 지원정책이 끝나가지만,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증가하여,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 폐업하는 이들을 위해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재기를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

□ 정부는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정부(기재부)는 3.13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추가 부담 완화'를 논의
 -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3.13.~4.12.)을 전개, 정부·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선구매, 외부 식당 선지급을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아울러, 올해에도 금융지원 3중세트(상환연장·대환대출·전환보증) 지원*,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20%, 3.17.~28.),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원) 등으로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 * '24년부터 상환연장(0.6조원), 대환대출(0.2조원), 전환보증(1.2조원) 지원 중
 - 새출발기금 확대(30 → 40조원+α),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

□ 자치단체는 지역 소비진작 노력 및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

- 부산시는 연초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통해 市, 교육청, 관내 자치구의 선결제를 통한 소비진작 분위기를 확산, 3월에는 추경을 편성하여 이자·연회비·보증료 없이 최대 40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3無 희망잇기 카드' 사업(예산 200억원)을 추진할 계획
- 인천시는 올해부터 본인·배우자의 출산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출산급여(1회 90만원)을 지급하고, 5개 區에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매니저를 배치
- 광주시는 1.23일 '민생경제 결의대회'를 개최, 소직원 인근식당 이용의 날 운영 등 소비진작을 위해 노력, 올해 소상공인(연매출 5,000만원 이하) 중소기업권 대출이자 지원사업(최대 35만원)을 신규 추진하고, 3월에는 市-충장로 건물주 간 상가공실 반값임대 상생협약을 체결
- 대전시는 정부고용보험 외에도 市에서 1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30→60만원) 및 유무선 카드결제 통신비 지급(최대 11만원)을 추진
- 강원도는 '24.12월부터 道의회, 시·군, 지역농협 등과 함께 소비진작을 위한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을 추진, 1.24일에는 국민·신한은행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500억원)을 조기 투입
- 경북도는 3.12일 '소상공인 행복보탬 지원사업'을 공고,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1800개소)의 전기세(최대 20만원) 및 출산 종업원이 있는 소상공인의 대체 인건비(6개월 간 월 200만원)를 보조

2 전 국(청년 주거 문제 해소 노력)

- 청년들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저출생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
- 부산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 함께 청년 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 월 임대료 중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며, 올해 1천 가구를 선정하고 '30년까지 누적 1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
- 인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집을 임대하는 '천원주택'을 공급, 지난 3.6~14일 예비입주자 모집 결과 올해 500가구 모집에 총 3,681가구(2~30대 약 80%)가 신청해,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높은 관심을 확인
- 광주시는 무주택 청년(19~39세) 대상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연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최대 4년) 대출이자를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
- 대전시는 '30년까지 2만호 공급을 목표(6,306호 完)로 '대전형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민간임대주택(1,195호 규모)을 조성하여 8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국토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도 착공 예정

3 제 주(런케이이션(Learning+Vacation) 활성화 추진)

- 제주도는 워케이션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를 발전시켜 교육과 휴가를 결합한 '런케이이션'(Learning+Vacation) 사업을 본격 추진
 - 런케이이션은 계절학기를 활용해 타 지역 대학생들이 학점 취득과 제주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道는 숙소 등을 지원하고, 지역대학은 계절학기 과목과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
- 道와 제주대는 지난해부터 국내 대학을 비롯해 美 프린스턴大 등 16개 대학과 교류 협약을 체결해 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참여 학생에게 지역화폐로 5만원의 소비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점차 참여 인원을 확대할 계획
 - 이를 통해 도내 대학 학생 수 부족 문제 해결과 생활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적으로는 인재 유치 효과를 기대
 - ※ 道는 5월 제주에서 열리는 'APEC 교육장관회의'를 계기로 외국 대학 유치 본격화
- 한편,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행에 학습적 요소를 더한 런케이이션도 운영,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자연·문화·역사를 체험하는 '제주 가치 공감 런케이이션'을 진행, 큰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

참 고

시·도지사 주요 일정(3.20)

시·도	시 간	내 용
서 울	-	· 청내근무
부 산	14:50 18:00	·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현장방문 · 한국지방신문협회 정기총회
대 구	-	· 청내근무
인 천	15:00	·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광 주	10:30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보고회
대 전	10:00 13:00	· 市의회 제285회 임시회 · 2025 충청미래포럼
울 산	10:00	· 市의회 제254회 임시회
세 종	07:20 16:00	· 제34차 세종경제포럼 · ‘세종사랑 시민운동본부’ 창립총회 및 결의대회
경 기	-	· 청내근무
강 원	10:30 14:00	· 수도권 강원시대 포럼 ·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착공식
충 북	13:00 16:30	· 2025 충청미래포럼 · 정원교육센터 활성화 간담회
충 남	13:00	· 2025 충청미래포럼
전 북	-	· 청내근무
전 남	-	· 청내근무
경 북	11:00	· 道의회 제353회 임시회
경 남	-	· 청내근무
제 주	10:10 15:00	· 제주한라대학교 특별강연 ·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착공식